

회오리 바다 스릴...명량해상케이블카 내일 개통

울돌목 해상 가로지르는 편도 1km
10인승 26대...해질녘 낙조 환상적
다도해 어우러져 여행 명승지 기대



명량대첩 전승지인 울돌목을 가로지르는 편도 1km의 해상케이블카가 3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명량대첩 전승지인 울돌목을 가로지르는 해상 케이블카가 3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명량해상케이블카는 해남스테이션을 출발해 울돌목 해협 위를 가로질러 진도 망금산 정상 진도스테이션에서 정차한 후 다시 해남스테이션까지 순환 운행한다. 총 길이는 편도 1km이다. 10인승 캐빈 26대가 운행되며, 이 중 13대는 바닥이 투명한 크리스탈 캐빈으로 신비로운 울돌목의 회오리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짜릿함을 느낄 수 있다. 또 국내 최초 사당교인 진도대교의 웅장한 자태와 아름다운 다도해가 어우러진 파노라마 뷰에 해질 무렵 금빛 낙조의 환상적인 절경이 펼쳐지는 국

흐르는 길이 2km의 수로이다. 유속이 빠르고 바닥이 거칠어 급류가 서로 부딪혀 우는 소리를 낸다고 하여 울돌목이라고 불린다. 물살의 속도가 최대 11노트(시속 22km 안팎)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유속을 가진 바다이다. 명량해상케이블카 측은 개통을 앞두고 30일 각종 안전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상 구조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해경과 소방 등이 참여한 가운데 케이블카 멈춤 사고 발생시 동력 등하강기 이용 등이 이뤄졌다. 명량해상케이블카 관계자는 "명량대첩의 현장에서 역사적 감동과 환상적인 경관은 물론 회오리 바다의 스릴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로 지친 전국민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전라도 최고 여행지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명량해상케이블카 측은 심각한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우선 상업운행을 실시한 뒤 오는 10월 정식 개장식을 갖는다는 계획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내 여행지 추천 코스이기도 하다. 해상케이블카가 들어선 명량해협은 임진왜란 당시 13척의 배로 133척의 왜선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 전승지로 해남과 진도의 경계를

영암 무화과 본격 출하 동해로 수확량 30% 줄어



영암 지역특화 과수인 무화과가 8월 중순부터 본격 수확돼 최고 품질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유혹하고 있다. 영암군농업기술센터는 신비의 과일이자 '여왕의 과일'로 불리는 무화과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했다. 올해는 동해에 따라 수확량이 30~40% 줄었지만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그 어느 때 보다 맛있는 과일 소비 욕구가 커지고 있다. 무화과는 햇빛이 좋은 8월 중순부터 본격 출하가 시작돼 품질이 최상인 상태로 유통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영암군농업기술센터는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당도 14브릭스 내외의 최고 품질 무화과 생산을 위해 여름 전정, 최적의 비료 공급 등 핵심기술을 보급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의 특화 과일인 무화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기술지원 등 군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고 밝혔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새단장한 흑산도 '새 조각 공원' 재개장

세계 조류목각 등 700여점 전시



신안군이 흑산도의 명물 '새 조각 공원'을 개보수해 재개장했다. <사진> 새조각 공원은 '새'를 테마로 흑산도의 우수한 자연생태를 널리 알리고 관광인프라 구축과 외부 방문객 유치에 위해 지난 2014년 4월 4일 개원했으나 잦은 태풍과 강한 해풍으로 시설물이 파손되는 등 사실상 방치돼 왔다. 군은 흑산도만이 가진 고유한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새 조각 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부지 8500㎡ 면적에 기존 전시돼 있던 선박 3척, 아프리카 짐바브웨 쇼나작품 200여점을 활용해 자연괴석 75점, 분수대 2개소, 주차장, 소나무, 장수매화, 야생화 27종 등을 새롭게 조성했다. 또 새조각 박물관에는 흑산도 동박새와 세계의 조류목각 및 공예품 700여점을 전시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새 조각공원은 생태자원이

밀집된 흑산도의 우수한 자원을 알리는 큰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특화된 지역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적극 발굴 육성해 소외된 섬 지역민들의 삶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신안 재원도~여의도 여객선 '섬사랑 3호' 취항

신안군 재원도와 여의도를 운항하는 봉리-재원항로에 차도선형 여객선 '섬사랑 3호'가 운항을 시작했다. <사진> 새롭게 건조된 섬사랑 3호는 156t급으로 이전 선박보다 크고 평균속도도 12.5노트로 빠르다. 차량은 대형 승용차 7대 또는 5t 트럭 2대에 승용차 2대까지 적재가 가능하다. 국가보조항로인 봉리-재원 항로는 다른 항로에 비해 이용률이 높지만 기존 운항선박인 섬사랑 17

호(125t)가 수송능력이 미치지 못해 섬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어 왔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새로운 선박을 투입함으로써 해당 항로 낙도 주민들의 해상교통 편의와 경제활동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보조항로 노후 여객선 교체를 위한 여객선 건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진도군 쇼핑몰 '진도아리랑' 22일까지 추석맞이 특별전

진도군 농수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진도아리랑'이 오는 22일까지 추석맞이 특별전을 진행한다. 이번 추석 특별전에서는 40개 업체의 150여개 농수특산물이 모두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1인당 할인금액은 최대 5만원으로 오는 15일 주문 물품까지 택배업체에서 택배발송이 가능하며, 15일 이후 주문물품은 23일부터 발송한다. '진도아리랑쇼핑몰'은 진도군 농수특산물 중 전남도지사 품질인증, 진도군수 품질인증 등을 받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전복, 멸치, 김, 미역, 다시마를 비롯해 구기자, 울금, 감정쌀, 표고버섯 등 농수산물 150여개 품목을 엄선했다. 신선하고 품질이 인증된 우수 상품만을 엄선해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전문 상담사 9명을 배치해 고객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추석맞이 특별전 상품은 맛과 품질이 우수한 진도군 농수특산물 중에서도 특별히 엄선된 제품으로 구성했다"며 "농수산물 직접 업체를 대폭 늘리고 고객이 다양하게 고를 수 있도록 품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무안전국승달국악대제전 3일~5일...5개 부문 경연

국악인들의 한마당 축제인 '제19회 무안전국승달국악대제전'이 3일부터 5일까지 무안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무안군이 주최하고 (사)승달우리소리 고법보존회(이사장 서장식)가 주관하는 무안전국승달국악대제전은 강용안, 강남중, 강태홍 등 무안군 출신의 명인·명창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개최해 국악인의 등용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번 대회는 현악, 관악, 판소리, 무용, 가야금 병창, 판소리 고법 등 6개 분야(일반부, 학생부)로 나눠 진행된다.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무안전국승달국악대제전을 추가해 미래의 명인·명창을 꿈꾸는 국악지방생들이 참여해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또 명인·명창 추모 세계 음악극 페스티벌도 함께 개최해 군민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해 관람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시상은 최고 영예의 대통령상 1명, 국무총리상 1명,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4명, 교육부 장관상 1명,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1명 등 각 부문별로 시상된다. 김산 무안군수는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하기 위해 예선은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본선 경연은 참가자와 심사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대면으로 심사하게 된다"며 "승달국악대제전은 청소년과 일반인에게 국악의 저변확대,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든든한 지킴이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